

희망찬 도약!
청년이 찾는 큰 목포

목포시정소식

2025. 가을호 [Vol.93]



2025 목포항구축제

희망찬 도약! 청년이 찾는 큰 목표

시정목표는 '더 많은 일자리와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해 청년이 찾아오는 새로운 기회의 도시, 매력적인 국제형 관광문화도시 목표로 도약하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01

도약하는 지역경제

- 미래 첨단산업 육성과 스마트산업단지 조성
- 창업지원을 통한 신생기업 100개 육성, 일자리 1만개 창출



02

감성충만 관광문화

- 목포해상케이블카와 연계한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 지역문화·예술·해양을 바탕으로 관광객 2천만시대 실현



03

시민행복 맞춤복지

-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생애주기별 맞춤복지 제공
- 시민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는 복지정책 마련



04

인재양성 미래교육

- 소중한 아이들의 미래와 꿈을 펼칠 교육환경 조성
- 지역 인재 적극 발굴·양성으로 교육도시 명성 회복



05

소통중심 공감행정

- 각 분야 종사자 및 다양한 계층 간의 소통과 의견청취
- 민주적 절차로 소외감 없는 목표, 시민이 하나되는 목표

희망찬 도약! 청년이 찾는 큰 목포 목포시정소식

CONTENTS

2025. 가을호 [Vol.93]



- 04 **목포랑** 맛있게 –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 06 **목포랑** 활기차게 – 가을빛 머금은 바다, 축제가 물결치다
- 14 **목포랑** 경축 – 제63회 목포 시민의 날
- 15 **목포랑** 같이가게 – 소비쿠폰 쓰GO! 지역경제 살리GO!
- 16 **목포랑** 즐겁게 – 봄의 웃음이 가득했던 시간들
- 19 **목포랑** 안전하게 – 2025 을지연습, 시민의 안전을 지키다
- 20 **목포랑** 흥미롭게 – 촌캉스 1번지, 외달도
- 22 **목포랑** 출발 – 시티투어버스 새로운 이름을 입다
- 24 [기획] 낙엽따라 파도따라 돌레길을 걷다
- 26 시정뉴스
- 28 의정소식
- 29 우리동네 소식
- 34 생생정보마당



Cover Story
2025 목포항구축제



발행처 목포시 편집인 홍보과 발행일 2025년 9월
주 소 (우)58613 목포시 양율로 203 전 화 061)270-8539

목포시정소식지는 <http://www.mokpo.go.kr> 에서도 볼 수 있으며,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목포시의 공식적인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www.facebook.com/mokpo.kr
[instagram.com/mokpocity_story](https://www.instagram.com/mokpocity_story)
blog.naver.com/mptour123
story.kakao.com/ch/mokpocity
youtube.com/c/mokpocity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Namdo International Culinary Expo



박람회 QR코드



오는 10월,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가 목포문화예술회관과 원도심 일원에서 개최된다. '자연을 맛보다, 바다를 맛나다'를 슬로건으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국내 최초로 미식을 중심에 둔 테마 인증 국제행사이자, 올해 국내에서 개최되는 F&B(식음료) 분야 최대 규모이자 최장 기간(26일간)의 박람회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원물 생산부터 가공, 유통, 외식, 관광까지 미식 산업 전 분야가 참여하여 K-Culture의 핵심인 K-Food의 진면목을 맛의 도시 목포에서 직접 보고, 맛보고, 체험할 수 있다.

- 박람회 기간 : 2025년 10월 1일~26일
- 휴관일 : 2025년 10월 13일, 20일 (월요일)

주요 콘텐츠

프로그램	내 용	비 고
3대 전시관		
① 주제관	▶ 시간과 정성이 빚어낸 맛 － 남도 미식의 가치와 정체성을 미디어 아트와 융복합 체험으로 풀어낸 ART GALLERY형 주제관	
② 미식문화관	▶ 남도미식명인과 22개 시·군이 소개하는 ‘먹킷리스트’ 종합전시장 － 남도미식명인관, 시·군홍보관, 글로벌 국가관, 쿠킹토크쇼 등	
③ K-Food 산업관	▶ 다채로운 기업들이 보여주는 식품산업의 NEXT LEVEL! 먹는 것 하나로 세계를 사로잡을 기술력 － 푸드테크, 주방기기, 지속가능식품, 농수축산물 등	
3대 미식파티		
④ 남도미식 주류페어링	▶ 남도 미식과 한 잔의 완성! － 전문 소믈리에와 남도 셰프가 함께 하는 전통주, 와인의 특별한 페어링	
⑤ 남도미식 레스토랑	▶ 남도 재료로 빚어낸 스타셰프의 시그니처 메뉴 맛보기 － 오직 박람회에서만 맛볼 수 있는 스타 셰프 콜라보 팝업 레스토랑	
⑥ 남도 대표맛집 미식로드	▶ 남도의 맛과 이야기를 따라 걷는 특별한 미식 여정 － 지역 식재료와 남도 대표 맛집이 어우러진 미식 체험의 길	

프로그램	내 용	비 고
4대 글로벌 이벤트		
⑦ 아세안 파빌리온 (ASEAN Pavilion)	▶ 아세안 10개국이 통째로 온다! - 아세안 미식 + 로컬 문화 체험까지 All in One!	
⑧ 국제경연 'K-푸드 마스터'	▶ 전 세계 주방에서 튀어나온 한식 고수들, 남도 한복판에! - 13개국 셰프들이 '한국의 장'을 테마로 한판 붙는다	
⑨ 월드 미식파티	▶ 국경을 넘어 만나는 맛의 축제, 월드 미식 파티 - 스페인 비리 셰프, 일본 니시무라 셰프 초청	
⑩ 남도미식 국제 컨퍼런스	▶ K-미식의 미래를 말하다! - 국내·외 미식 전문가, 셰프가 함께하는 고품격 미식 토크	
3대 경연대회		
⑪ 남도 미식 청년 셰프 콘테스트	▶ 전국 2030 셰프들이 남도 식재료로 펼치는 진짜배기 실력 대결 - 선발자는 박람회 미식이벤트존 부스 입성 확정!	
⑫ 남도 미래셰프 청소년 조리 경연	▶ 청춘의 열정, 남도의 맛을 담다! - 미래 인재들이 남도의 식재료로 실력을 겨루는 청소년 요리 경연	
⑬ 시·군 요리 경연대회	▶ 시·군 대표요리 전시 경연 - 남도의 시·군 대표가 내놓은 진짜 남도의 맛!	
3대 페스티벌		
⑭ 주류 페스타 (10.10.~12.)	▶ 애주가들 다 모여! 전통주에 세계주류까지! - 술공방 체험부터 미식 페어링까지, 먹고 마시고 취향대로 즐기는 주류 천국	
⑮ 소금 박람회 (10.17.~19.)	▶ 미식의 시작은 소금이다 - 천일염, 젓갈, 소금디저트까지, 짠맛의 품격을 끌어올리는 체험 페스티벌	
⑯ 김밥 페스티벌 (10.24.~26.)	▶ 남도 특산물로 만드는 창작 김밥들의 향연 - 누가 누가 제일 힙하게 말았나!	
4대 비즈니스		
⑰ 수출상담회 (KOTRA, 재외동포청)	▶ 보고, 먹고, 계약까지! - 글로벌 바이어와 바로 만나는 K-Food 수출 판로 확대의 장	
⑱ 글로벌 한식 포럼	▶ 세계 식탁에 차려지는 K-Food의 미래	
⑲ K-Food 레시피 개발	▶ 남도 식재료로 만든 신상 레시피, 우리 메뉴가 된다!	
⑳ 남도 식자재 온·오프라인 판매	▶ 전통도 트렌드도 잡은 현장 마켓부터 라이브 커머스까지!	

수묵의 진화, 세계를 매료시키다

2025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8월 30일 목포 · 진도 · 해남에서 개막

동아시아 수묵정신의 현대적 해석과 글로벌 확산을 목표로 하는 ‘2025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가 8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두 달간 목포시를 비롯한 진도군, 해남군 일원에서 성대하게 펼쳐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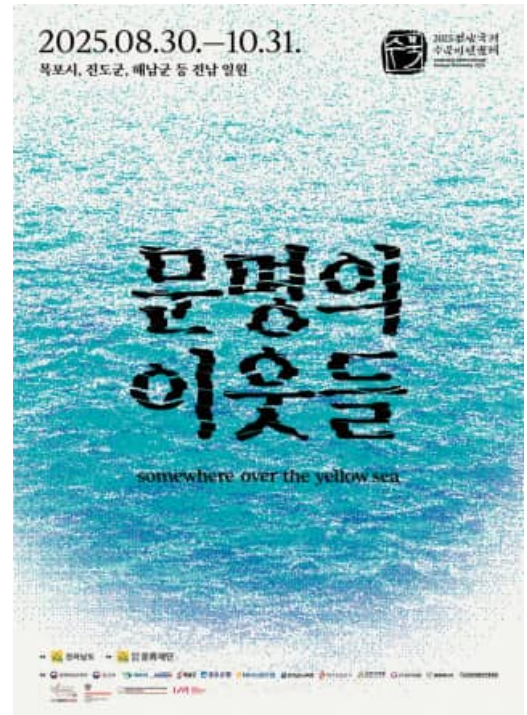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수묵비엔날레는 ‘문명의 이웃들(Somewhere over the Yellow Sea)’이라는 주제로, 대륙문명권이 아닌 해양문명권으로서의 ‘아시아 문명’이 재조명된다. 국내·외 작가 83명(팀)이 참여해 전통 수묵부터 미디어아트, 설치, 사운드 등 다양한 장르로 수묵의 확장 가능성을 담아낸다.

목포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디지털 아트 그룹 팀랩(TeamLab)의 몰입형 수묵 미디어 작품이 공개되고, 실내 체육관에서는 10m 이상의 층고와 넓은 공간을 활용한 영상 미디어 작품이 전시되어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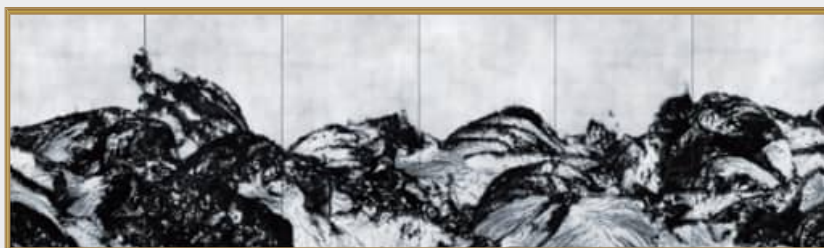
진도 소전미술관에서는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를 비롯한 서예 중심의 전시가 마련되었으며, 남도전통미술관에서는 황창배 등 근·현대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한편, 해남 고산 윤선도 박물관에서는 윤두서의 ‘자화상’, 정선의 ‘인왕제색도’ 등 전통 화가들의 예술적 발자취를 느낄 수 있다. 아울러, 땅끝순례문학관에서는 ‘붓의 향연’을 주제로 유럽과 아시아 작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전시가 진행 중이다.

이번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는 전통 수묵의 현대적 변화를 직접 체험하고 감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예술의 향연을 즐겨보자.



목포 문화예술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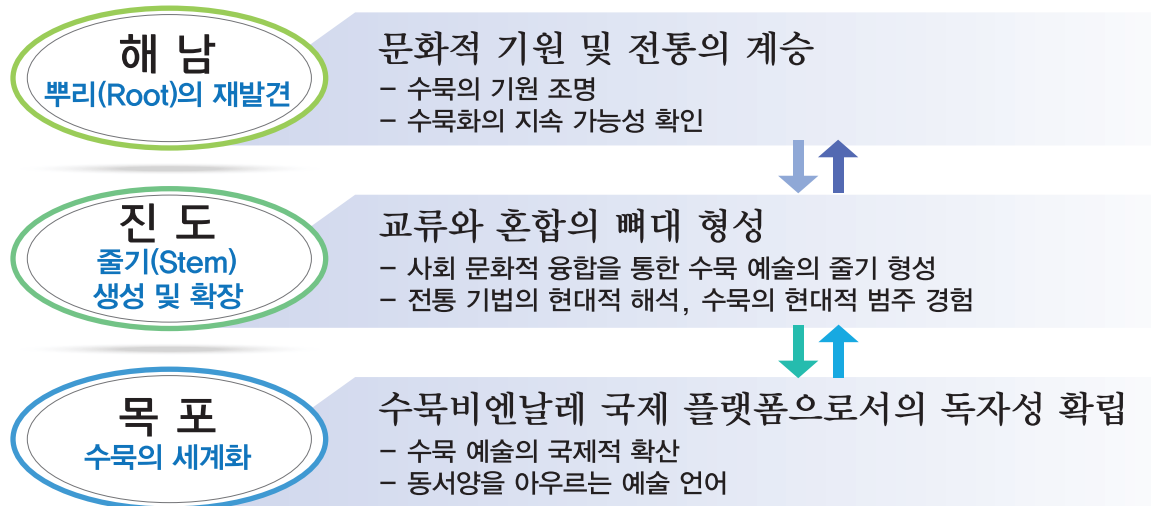


팀랩, 파도의 기억

목포 실내체육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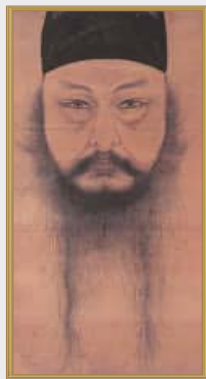


지민석, 스타벅스



2025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전시 흐름

해남 고산윤선도 박물관



공재 윤두서, 자화상



겸재 정선, 인왕제색도 ©국립중앙박물관

진도 소전미술관



추사 김정희, 세한도 영인본 ©예산군추사기념관



석파 이하응, 석란도병풍 ©울산박물관

해남 땅끝순례문학관



로랑 그라스, 과거에 대한 고찰
전남도립미술관 소장

진도 남도전통미술관



소정 황창배, 무제

바다와 함께하는 다채로운 축제의 장으로 돌아오다!

2025. 9. 26^{FRI} 금 ▶ 28^{SUN} 일
목포항 및 삼학도 일원

모포 2025
항구축제

목포시는 오는 9월 26일(금)부터 28일(일)까지 3일간, 목포항과 삼학도 일원에서 '2025 목포항구축제'를 성대하게 개최한다.

목포의 역사와 전통을 되살리고자 열리는 목포항구축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항구의 전통 파시(波市)를 축제로 재현하는 독창적인 가을 축제다. 설화가 깃든 삼학도에서 펼쳐지는 이번 축제는 항구 내음 가득한 목포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시민과 관광객을 맞이한다.

축제의 대표 콘텐츠인 '풍어 만선 길놀이'와 '파시 선상어시장'은 과거 항구의 활기찬 모습을 생생하게 재현하며, 제철 수산물을 즉석에서 요리해 즐기는 먹거리 프로그램을 통해 풍요로운 항구의 낭만을 느낄 수 있다. 또, 대형 수조에서 진행되는 시민 낚시대회, 어린이 바다놀이터, 목포선창거리 등

체험형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마련되어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즐길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와 함께 친절과 위생 관리를 한층 강화하고자 지난 8월 19일, 2025 하반기 주요 행사 대비 '관광수용태세 정비 부서별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갖고 관광객 맛이 준비를 하였다. 바가지요금 없는 투명한 가격 운영, 다회용기 사용 등 친환경 축제로서의 면모가 기대된다.

축제 기간에는 '낭만한끼', '파시 장터' 등 먹거리와 볼거리를 아우르는 콘텐츠가 풍성하게 운영되며, '미디어 아트 바닷길', '캔들라이트' 등 야간에는 특색 있는 경관 조명을 활용한 야간 콘텐츠가 방문객들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



목포항구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문화관광 축제이자 전라남도 대표축제로서,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대한민국 대표 항구축제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목포시는 이번 축제를 통해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지고 즐기며, 목포 원도심의 활력을 되살리고자 한다. 깊어가는 가을, 항구의 정취와 생생한 역사, 그리고 낭만 가득한 즐거움을 모두 경험할 수 있는 2025 목포항구축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가을빛 머금은 바다, ㄹ
축제가 물결치다 ㉓

바다 위에서 만나는 불꽃과 예술의 향연

목포해상 W 쇼

2025년 목포 해상W쇼는 지난 ▲4월 26일 '목포플렉스' ▲5월 31일 '원더랜드 인 목포' ▲7월 26일 'welcome to 목포 물불쇼' ▲8월 16일 '불타는 트롯 IN 목포'라는 주제로 총 네 차례 공연을 성공적으로 선보였으며, 매회 춤추는 바다분수와 불꽃쇼, 다양한 장르의 무대가 어우러져 시민과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8월 16일 평화광장 해상무대에서 열린 제4회 공연 '불타는 트롯 IN 목포'는 하계 휴가철 관광객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으로 하유비, 노지훈, 박주희 등 '미스·미스터 트롯' 출신 인기 가수들이 출연해 흥겨운 무대를 선사했다. 트로트의 매력을 고스란히 담은 이 공연은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즐기며 목포의 여름밤을 열기로 가득 채웠다.

공연 이후 이어진 해상 불꽃쇼에서는 제트스키와 조화를 이룬 화려한 불꽃 퍼포먼스가 펼쳐지며 관람객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목포의 밤바다는 빛과 음악, 물줄기가 어우러진 장관으로 물들었고, 많은 관광객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했다.

사전예약으로 운영된 데크관람석은 조기에 매진되며 공연의 인기를 입증했으며, 행사 전반에 걸쳐 질서 있는 관람 문화와 철저한 안전관리가 돋보였다. 이어지는 다섯 번째 공연은 해상W쇼의 마지막 정기 무대이자, 가장 특별한 공연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목포시는 오는 **10월 3일(금) 저녁 8시**, 평화광장 해상무대에서 ‘해양관광, 문화예술의 중심 목포와 마닐라의 만남’을 주제로 한 마지막 공연을 개최한다.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는 불꽃발사 체험 이벤트로 문을 열며, 한국 공연팀의 역동적인 퍼포먼스와 K-POP 음악에 맞춘 불꽃 쇼가 현장의 분위기를 절정으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뒤이어 필리핀 마닐라 공연팀의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댄스 무대와 불꽃 퍼포먼스는 목포에서 만나는 글로벌 문화 교류의 특별한 순간이 될 것이다.



그동안 목포해상W쇼가 선보여온 음악, 불꽃, 퍼포먼스를 넘어 도시 간 문화예술 교류의 새로운 장을 여는 이번 회차는 목포 해양관광 콘텐츠의 확장과 함께 더 큰 무대를 예고하고 있다.

이번 공연은 마지막 무대인만큼 이전보다 더욱 풍성하고 특별한 콘텐츠로 준비되었다. 가을밤, 목포의 낭만적인 바다 위에서 펼쳐질 특별한 순간을 절대 놓치지 말자.



2025 목포 문화유산 야행(夜行)

- 모던타임즈 목포 개항이야기 -



깊어지는 가을밤, 목포의 역사와 문화가 빛나는 야행(夜行)이 오는 10월 17일(금)부터 19일(일)까지 3일간,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일원에서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와 연계하여 「2025 목포 문화유산 야행」이 펼쳐진다. '모던타임즈 목포 개항이야기'라는 부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근대 도시로서의 목포를 조명하며, 개항기의 낭만과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야간 프로그램들로 구성된다.

'8夜(야)'라는 주제 아래 근대역사 공연, 전시, 체험, 음식 등 다채로운 콘텐츠가 어우러져 목포만의 밤 매력을 선보인다. 조명이 밝힌 문화유산 공간 속을 거닐다 보면 100년 전 시간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듯한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근대의 숨결이 살아 숨 쉬는 골목을 걷고, 이야기가 있는 문화유산을 감상하며, '모던타임즈'로 떠나는 가을밤 시간 여행을 시작해 보자!

8夜 내용



프로그램	내 용	비 고
1. 야경(夜景)		
① 문화유산 야간유람	▶ 문화유산과 함께하는 야간 유람 - 경관조명이 더해진 가을밤 문화유산 야간 유람 - 문화유산 야간 연장 운영	
2. 야로(夜路)		
② 개항거리 풍물 퍼레이드	▶ 연합 풍물패와 근대스타일 유람단의 행진 - 근대역사문화공간을 가득 채운 풍물패의 가락과 근대스타일 복장을 한 유람단 행진	
③ 근대거리 코스튬	▶ 1897 목포로의 타임머신 - 근대복장을 한 시민들과 극단이 어우러져 만드는 1897 목포의 거리	
3. 야사(夜史)		
④ 명창을 만나다	▶ 명창 박방금, 명창 안부덕의 제자와 하모니 공연 - 명창과 그의 제자들의 퓨전 판소리 합동 공연	
⑤ 명무의 춤, 맥	▶ 명무의 춤의 향연 - 무형유산 故 이매방 선생의 제자들이 펼치는 전통춤 공연	

4. 야화(夜畵)

- | | |
|--------------------|--|
| ⑥ 해설이 있는
옥공예 전시 | ▶ 국가 무형유산 옥장 장주원 선생의 옥공예 이야기
- 옥장 장주원 선생의 옥공예 시연과 옥공예품 전시 |
| ⑦ 무빙샌드아트 | ▶ 영상과 모래로 그리는 근대 목포이야기
- 목포 문화유산 배경 영상에 스토리텔링이 융합된
샌드아트 공연 |
| ⑧ 패션쇼
'리듬&하모니' | ▶ 목포대학생들의 런웨이 패션쇼
- 국립목포대학교 패션의류학과 학생들의 졸업작품을 활용한 패션쇼 |



5. 야설(夜說)

- | | |
|----------------------------|--|
| ⑨ 필그림
달빛콘서트 | ▶ 달빛 아래 목포를 듣다
- 목포의 정취를 북돋을 목포 주제의 클래식음악과 국악의 콜라보 공연 |
| ⑩ 인형극
북촌사람들 | ▶ 일제강점기 목포사람들의 구슬픈 이야기
- 목포 일본인 거주지역(남촌)과 조선인
거주지역(북촌)에서의 삶을 담은 공연 |
| ⑪ 모던 스테이지 | ▶ 팝업 로드 공연
- 목포 명물 옥단이가 들려주는 목포 4.8 만세
운동 이야기 |
| ⑫ 근대목포오케스트라
'목포 in 랩소디' | ▶ 시간 여행 콘서트
- 근대부터 현대의 시대별 대표곡을 오케스트라와 재즈밴드로 감상 |
| ⑬ 모던타임즈 | ▶ 악극 '기수와 별님' & 옥단이 퍼레이드
- 근대 목포의 생활상을 담은 악극과 옥단이 퍼레이드 |



6. 야시(夜市)

- | | |
|---------------------|--|
| ⑭ 오감 만족
야행 공방 | ▶ 야행 공방 체험
- 양말목, 무드등, 슈링클스 만들기 등 만들기 체험 |
| ⑮ 1897
청년 플리마켓 | ▶ 아트플리마켓
- 관내 공방 및 청년 작가들의 참여로
합리적 가격대의 수공예품 전시 및 판매 |
| ⑯ 목포대와 함께하는
과학체험 | ▶ 목포의 밤, 네온을 만나다
- 목포대 과학영재교육원과 함께 만들어 보는
네온사인 과학 체험활동 |



7. 야식(夜食)

- | | |
|-------------|--|
| ⑰ 목포9미 미식존 | ▶ 목포9미(味) 등 먹거리 가득한 야시장
- 목포 특산물과 음식들로 이루어진 푸드트럭 야시장 |
| ⑱ 모두의 만찬 | ▶ 남도시락
- 남도음식의 정수 목포미식! 로드 도시락 만찬 체험 |
| ⑲ 목포 재즈 디너쇼 | ▶ 한국의 뉴올리언즈 목포에서 재즈쇼를 만나다
- 목포 대표 음료 및 특산물 활용 미식 체험 및 재즈 공연 |



8. 야숙(夜宿)

- | | |
|------------|--|
| ⑳ 목포에서 하룻밤 | ▶ 야행과 함께하는 하룻밤
- 관내 게스트하우스 숙박 이용 시 기념품 제공
* 행사장 내 종합안내소 문의 |
|------------|--|



경 제63회 목포 시민의 날 축

“제63회 목포 시민의 날”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경축합니다.

‘목포 시민의 날’은 목포시 발전을 기념하고 시민의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날입니다.

경사스러운 날을 맞아 올해 ‘목포 시민의 날’ 기념행사는 10월 1일 목포시민 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리며, ‘목포 시민의 상’ 시상식과 시립 예술단의 축하 공연,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성공 개최 기원 퍼포먼스가 마련되어 경축의 분위기를 한층 더해 줄 것입니다.

매년 ‘목포 시민의 날’에 수여하는 ‘목포 시민의 상’은 목포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분을 발굴·예우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지역사회 봉사, 교육문화, 경제, 체육, 효행, 특별 활동 등 6개 부문에서 후보자 추천을 받아 공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1인을 선정합니다. 1963년 첫 시상 이후 2024년까지 106명과 4개 단체에 시민의 상을 수여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제63회 목포 시민의 날”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기념하기 위해, 10월 1일 하루 동안 특별한 혜택을 마련했습니다. **자연사박물관**을 비롯해 **생활도자박물관**, **어린이바다과학관**, **목포문학관**, **근대역사관**, 5개 전시관을 목포 시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10월 1일, 목포 시민의 날을 다함께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비쿠폰 쓰GO! 지역경제 살리GO!

- 목포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분 신속 지급... 2차도 차질 없이 추진

목포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사업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9월 1일 기준 지급률이 98.8%에 달하고 있다.

정부 지침 발표 직후, 시는 관련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TF팀'을 구성해 쿠폰 신청부터 배부까지의 전 과정을 신속하게 정비하였다.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운영, 보조인력 채용, 콜센터 운영 등 다양한 조치를 병행했다.

특히,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는 정보 취약계층과 고령자도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한 대표적인 사례다.

실제로, 유달동 행정복지센터는 도서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배부 활동'을 실시하여, 교통 여건이 열악한 섬 지역 어르신들에게 직접 쿠폰을 전달하였고, 부흥동에서는 신청 초기 약 3일간 야간 접수 창구를 운영해 평일 낮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들에게 큰 호평을 받았다. 이처럼 목포시는 모든 시민이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소비쿠폰의 조기 유통과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소비쿠폰 조기사용 캠페인'도 병행 추진하였다. 쿠폰의 소비기한은 11월 30일까지이나 침체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소비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주요 상권이 밀집한 평화광장 일원을 중심으로 '지금 바로 소비쿠폰 쓰GO!, 지역경제 살리GO!' 분위기를 확산시켜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목포시는 오는 9월 22일부터 시작되는 2차 소비쿠폰 지급도 차질 없이 준비 중이다. 1차 지급보다 시민의 체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안내 서비스 강화, 불편 민원 대응체계 보완 등 다각적인 개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2차 소비쿠폰은 전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신용·체크·선불카드로 지급된다. 1차와 마찬가지로 사용처 또한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장에서 가능하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 기한은 2025년 11월 30일까지이다. 목포시는 이후 잔액이 소멸하므로 기한 내 모두 사용하여 지역경제 살리기에 동참해 주길 당부했다.



이순신 정신과 봄꽃이 어우러진 목포의 봄, '유달산 봄축제' 성황리 마무리

목포시는 지난 4월 5일부터 6일까지 유달산 일원에서 개최한 '2025 유달산 봄축제'를 시민과 관광객의 큰 호응속에 성황리 마무리했다. '이순신의 지혜, 노적봉의 승리!'를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는 유달산의 봄꽃 풍경과 목포 고유의 수군 문화를 접목한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구성하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로 평가받았다.

축제의 시작을 알린 '만호수군 화합의 퍼레이드'는 23개 동 주민참여단과 지역 어린이집, 목포해양대학교 등이 함께 참여해 전통 수군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장관을 연출했고, '고하도 이순신 유적지 순례단', '옥단이길 순례단' 등 역사 체험형 프로그램은 가족 단위 관람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아울러, 51개 지역 상생 협력업체에서 5% 할인 혜택을 제공한 스탬프ラリー도 관광객들의 참여를 끌어내며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했다.

축제 기간에는 봄꽃 토크 콘서트가 열려 봄의 생동감을 더했고, 일주도로 곳곳에서 열린 전시·체험 프로그램들은 남녀노소 모두에게 풍성한 즐길 거리를 제공했다. 교통 편의를 고려해 운영된 셔틀버스 역시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특히 근대역사문화공간과 연계한 노선 운영은 관광지 간 이동 편의와 홍보 효과를 동시에 거뒀다.

이번 축제는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만들어낸 지역 문화축제로, 목포의 역사와 감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도 지역의 전통과 관광을 접목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내년에는 더욱 다채로운 축제로 찾아올 계획이다.



전국의 열정이 목포를 달궜다!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성공적인 폐막

전국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최대 스포츠 축제인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지난 4월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목포를 중심으로 전남 20개 시·군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는 총 57개 경기장에서 41개 종목이 펼쳐졌으며, 12세 이하부부터 일반부까지 전국에서 모인 2만여 명의 생활체육 동호인과 임원들이 참가해 갈고 닦은 기량을 선의의 경쟁을 통해 발휘하며 우정과 화합을 나눴다.

목포에서는 종합경기장, 실내 수영장 등 7개 경기장에서 7개 종목이 진행되었으며, 700여 명의

시민 자원봉사자들이 경기 운영, 안내, 안전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성공적인 대회 운영을 이끌었다. 대회 기간 목포 전역은 참가자들로 붐비며 숙박시설과 음식점이 만석을 이루는 등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었고, 체전과 연계된 문화 행사 및 관광 프로그램을 통해 도시 브랜드 이미지도 한층 제고되었다.

이번 대회를 끝으로 2023년 전국체전과 전국 장애인체전, 2024년 전국소년체전과 전국장애인 학생체전에 이은 목포의 3개년 대규모 스포츠 행사 일정이 모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세대를 아우른 음악 축제, 큰 호응 속에 마침표 음악 도시 목포, '뮤직플레이'로 물들다



목포시가 주최한 대표 음악 축제 '2025 목포 뮤직플레이'가 지난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목포 종합경기장 일원에서 목포를 음악으로 물들이며 화려한 피날레를 장식했다.

목포 고유의 음악 자산을 활용한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 전시 프로그램을 통해 세대를 아우르는 풍성한 음악 축제로 호평을 받았으며,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했다.

축제 첫날에는 '이난영 · 김시스터즈'를 주제로 한 개막 공연과 함께 '목포노래큰잔치' 출연진 무대, 그리고 남진, 김필, 소향 등이 출연한 크로스오버 공연이 진행되어 깊은 감성과 에너지를 전했다.

둘째 날에는 총상금 1,150만 원 규모의 창작곡 음악 경연대회가 펼쳐졌으며, '목포의 향기'를 부른 송컴퍼니가 1등을 차지하는 등 본선 진출 14개 팀이 수준 높은 무대를 선보였다.

이어 열린 K-Pop 공연에는 비투비, 아이칠린, 원어스 등 인기 아이돌 그룹이 출연해 젊은 층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냈다.

셋째 날에는 실력과 댄서들의 열띤 댄스배틀이 이어졌고, 자이언티, 기리보이, 댄딘, 잭팟 등 정상급 뮤지션이 함께한 힙합 공연으로 축제는 절정에 달했다. 프린지 무대와 '더 스트리트 싱잉 마블', '뮤직플레이 리스트' 등 관람객 참여형 프로그램도 큰 인기를 끌었으며, '목포기억저장소', '뮤직스퀘어' 등 음악사를 테마로 한 전시 체험 공간과 푸드존, 팝업스토어, 힐링존 등 부대 시설도 운영되어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했다.

화려한 무대와 열정적인 공연으로 가득했던 이번 축제를 통해 목포시는 문화예술 도시로서 다시 한번 자리매김 하였다.



2025 을지연습, 시민의 안전을 지키다

목포시는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3박 4일간 진행된 '2025 을지연습'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을지연습'이란 매년 1회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비상대비 훈련으로 국가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실제 훈련에는 20개 기관과 2,000여 명의 민·관·군·경이 참여해 실제 전시 상황을 가정한 비상 대응 능력과 협력 체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강화했다.

특히 19일에는 목포세라믹산업단지에서 민·관·군·경 13개 기관 160여 명이 함께 참여해 다중이용시설 대테러 대응 실제훈련을 했으며, 긴밀한 협력과 신속한 대응 체계를 확인했다. 이어 20일 오후 2시에는 전국적으로 민방위 공습 대피 훈련이 시행되어, 목포시는 어울림 도서관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민방위 공습 대피 훈련이 진행되었다. 공습 상황 시 대피요령과 비상 행동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 시민들의 안전 의식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훈련은 위기 상황 발생 시 부서별 임무 수행과 기관 간 협조 체계가 얼마나 원활하게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자리로, 민·관·군·경 참여자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임무에 임했다.

목포시는 이번 을지연습을 통해 도출된 개선 사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앞으로 더욱 철저한 비상 대비 태세를 구축할 예정이며, 유사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어떠한 허점도 없도록 완전한 대비 태세를 갖추기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An aerial photograph of Widal-do, a small island in the Chonghae Islands. The island is covered in dense green forest and has a small cluster of buildings and a beach on its western side. The surrounding water is a clear, light blue. In the background, other islands and a bridge are visible under a hazy sky. Overlaid on the left side of the image is the text '초강스 1번지, 외달도' in a stylized font. The first part is in yellow with a blue outline, and the second part is in white with a blue outline. Several small, stylized blue fish are swimming in the water on the right side of the image.

초강스 1번지,
외달도

가족 단위 여행객은 해수욕장과 해수풀장에서 아이들과 신나는 물놀이를 즐기고, 부모들은 인근 소나무 숲과 산책로를 따라 산림욕을 즐길 수 있다. 연인들에게는 탁 트인 바다와 어우러진 낭만적인 한옥 민박과 해변 산책이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준다. 특히, 현지에서 맛볼 수 있는 전복요리, 촌닭백숙 등 목포 특유의 보양식은 여름철 건강까지 챙겨주는 외달도만의 별미다.



외달도 해수욕장은 바닷물을 끌어 만든 친환경 인공풀장으로, 어린이풀장과 대형풀장이 함께 조성되어 연령대별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 더불어, 해변 인근에는 대형 그늘막과 소나무 숲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머무는 내내 불편함 없이 힐링할 수 있는 여건을 갖췄다.

올해 여름, 해수욕장 탈의실을 새롭게 단장하고 고정 그늘막 설치 등 이용객 편의시설을 정비하였다. 또한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수상안전 요원을 배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외달도는 지난 7월 12일부터 8월 24일 까지 해수욕장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폭염에 지친 방문객들에게 시원한 쉼터를 제공하였다.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여유로운 휴식이 필요하다면 촌캉스 1번지 외달도로 떠나보자.



외달도 운항정보

- 매표소
목포연안여객선터미널 2층
- 소요시간 : 50분
- 슬로아일랜드호 운항시간

	목포 출발	외달도 출발	목포 도착	기 항 지
평일·주말	07:00	07:59	09:00	달리도/장좌도/율도
	10:30	11:29	12:30	달리도/장좌도/율도
	13:30	14:29	15:30	달리도/장좌도/율도
	16:30	17:29	18:30	달리도/장좌도/율도



시티투어버스 새로운 이름을 입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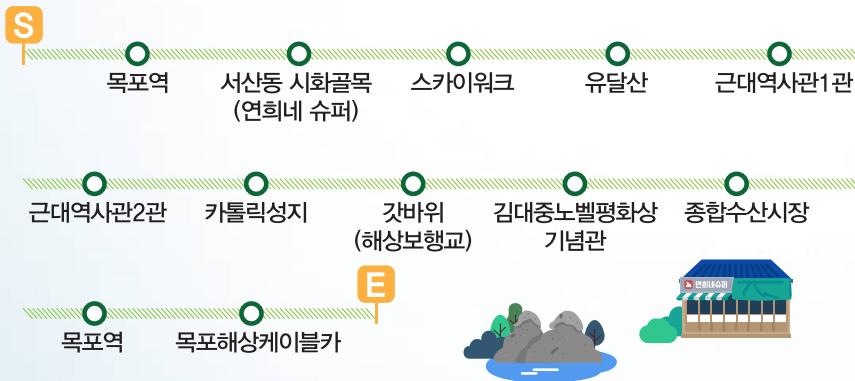
목포시티투어버스 목포를 더 가깝게, 감성을 더 깊게!

목포시는 6월부터 지역의 정체성과 감성을 반영해 '목포시티투어'의 명칭과 운영 노선을 새롭게 개편해 선보였다. 기존의 '주간 시티투어'는 '목포랑 시티투어'로, '야경 시티투어'는 '별빛 물결 시티투어'로 각각 이름을 바꿨다. '목포랑'은 '목포와 함께'라는 의미를 담아 따뜻하고 친근한 이미지를 전달하고자 하며, '별빛 물결'은 목포 바다의 야경과 감성을 담아내어 브랜드의 매력을 한층 끌어올렸다.



목포랑 시티투어

주간시티투어 09:30~15:30(소요시간:6시간)



주간에 운행되는 '목포랑 시티투어'는 KTX 호남선 종착역인 목포역에서 출발해 ▲영화 '1987' 촬영지인 연희네 슈퍼 ▲바다 위를 걷는 짜릿한 스카이워크 ▲드라마 '호텔 델루나' 촬영지로 유명한 목포 근대역사관 ▲세계적인 준대성전으로 인증받은 목포 카톨릭성지 등 목포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장소로 운영된다. 이 코스는 다양한 시대의 흔적을 따라가며 목포의 스토리와 정체성을 직접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관광객들의 흥미를 이끌어 낸다.



연희네 슈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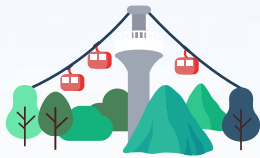
스카이워크



근대역사관1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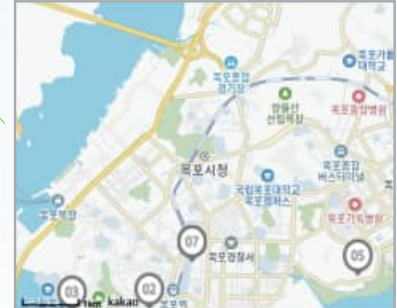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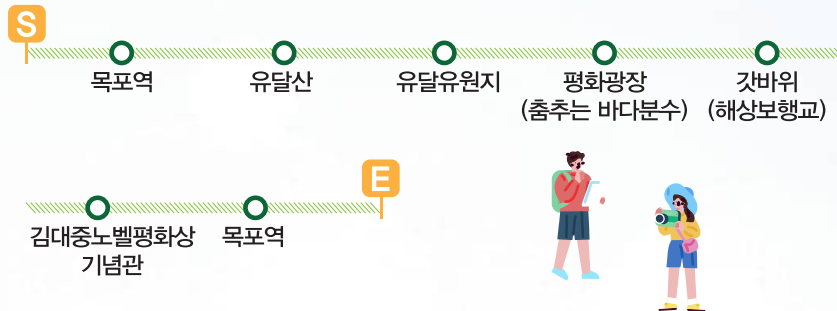


카톨릭성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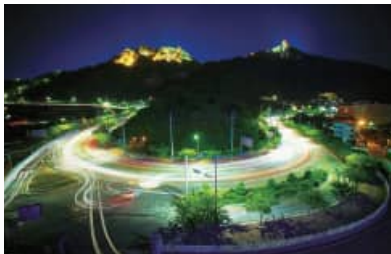
별빛 물결 시티투어

야경시티투어(소요시간: 3시간10분)



야간에 운영되는 ‘별빛 물결 시티투어’는 유달산, 평화광장, 갯바위 등 목포의 야경 명소를 순환하며, 낮과는 또 다른 낭만적인 도시의 매력을 전달하고자 한다. 탑승객은 전문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목포의 역사와 문화 이야기를 함께 즐길 수 있다. 야경 감상과 함께 포토존을 활용한 사진 촬영 기회도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이다.

각 정류장에서는 정차 시간이 충분히 주어져 자유롭게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어 연인, 가족, 친구 등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다. 목포역과 숙박시설, 주요 관광지와 연계된 동선으로 운영되어 철도 이용객과 도보 여행자 모두에게 편리한 접근성을 제공하는 이점이 있다. 우리 시민들에게도 새로워진 목포랑 시티투어를 적극 추천해 본다. 목포랑 출발~!



유달산



평화광장(춤추는 바다분수)



갯바위(해상보행교)

◆ 운행시기 및 주기

- 목포랑 시티투어(주간)
연중 매일 1회 (출발09:30~도착15:30)
- 별빛물결 시티투어(야간)

운행시기 및 주기 4월~11월 월요일은 시티투어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운행시기	운행주기	출발시간
4~5월/9~11월	주2회(금, 토)	오후 7:00 출발 (19:00~21:30)
6월		오후 7:30 출발 (19:30~22:30)
7~8월	화, 수, 목, 금, 토	

◆ 출발 장소

목포역 앞 시티투어 승강장

◆ 이용요금

어른 6,000원 / 초·중·고교생 2,500원 / 장애인·군인·경로·국가유공자·목포시민 3,000원 / 단체(20인이상) 3,000원

◆ 이용액 할인

시티투어 이용객에 한해 근대역사관 입장료 할인

◆ 예약 및 접수

나나고속관광 061-245-1814

홈페이지 <http://www.mokpo.go.kr/tou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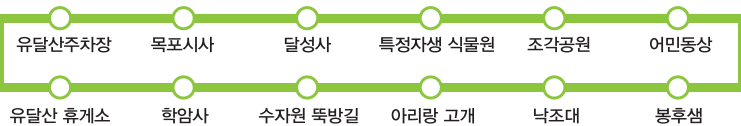
[기획] 낙엽따라 파도따라 둘레길을 걷다 

목포의 둘레길, 걷고 보고 느끼다!

다도해 경관과 노을, 낭만이 완성되는 길... 유달산 둘레길



약 6km에 달하는 유달산 둘레길은 편백 나무와 단풍나무 등으로 우거져 계절마다 다채로운 볼거리를 주고, 숲에서 품어져 나오는 치유의 기운으로 힐링과 건강을 한꺼번에 만끽할 수 있다. 둘레길 주변에는 노적봉, 조각공원, 자생식물원과 이난영 노래비가 있어 '목포의 눈물'이 흐르던



6km, 소요시간 약 2시간 30분

그 시절 정서와 목포의 문화 예술의 숨결이 지금도 고스란히 머물러 목포의 역사와 감성도 느낄 수 있다. 특히, 둘레길을 걷다 보면 목포의 푸른 바다와 수려한 다도해의 절경이 한눈에 들어와 감탄을 자아내며, 해 질 무렵 낙조대에서는 바다 위로 번져가는 붉은 노을은 유달산만의 낭만을 완성한다. 둘레길을 걷는 즐거움에 더해, 목포해상케이블카를 타고 푸른 바다 위를 가로지르며 유달산 둘레길과 목포 시가지 그림 같은 다도해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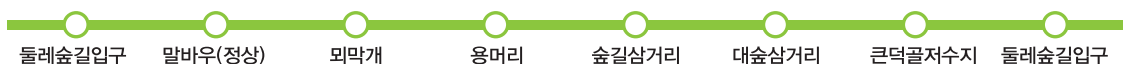
이순신 장군과 바다를 품은 길... 고하도 용오름 둘레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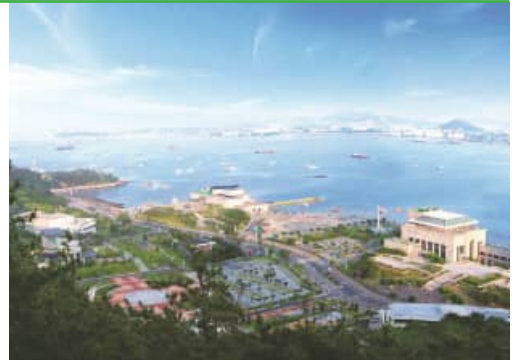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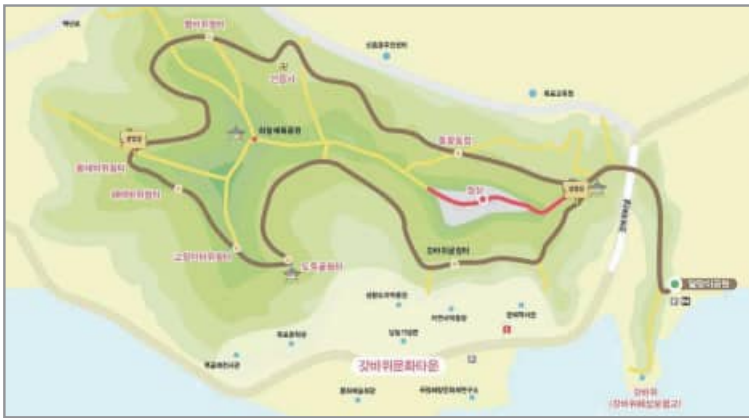
고하도 둘레길은 바다와 숲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길이다. 고하도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당시 106일간 머무르며 전열을 가다듬었던

곳이다. 13척의 판옥선 모형을 격자로 쌓아 올린 고하도 전망대에는 작은 역사관이 있어 이 땅의 이야기를 함께 짚어볼 수 있고, 주변의 150세 계단을 올라 건강을 챙겨볼 수 있어 가족과 함께하면 좋은 곳이다. 바닷바람과 함께 바다 위를 걸어볼 수 있는 고하도해상데크는 약 1.9km로 일제강점기에 조성한 인공해안 동굴도 직접 볼 수 있다. 해안데크로 내려가는 길에는 경사형 엘리베이터가 운영되어 교통약자와 관광객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한다. 가족과 연인과 함께 바다 위를 걸으며 이충무공과 만나보는 것을 적극 추천해 본다.

6km, 소요시간 약 2시간 40분



문화 예술의 향기 가득한 길 ... 입암산 둘레길



입암산 자락을 따라 조성된 입암산 둘레길은 갯바위문화타운과 천연기념물 제500호인 갯바위가 인접해 있다.

입암산 둘레길을 걷다 보면 자연사박물관과 생활도자박물관, 문화예술회관 등이 길목

마다 자리해 한눈에 내려다보이며, 목포 바다까지 덩으로 펼쳐진다. 봄이면 (구)동광농장에 흐드러지게 피는 벚꽃은 방문객에게 봄꽃 축제로의 초대장을 보낸다. 또한 오랜 풍화작용에 의해 생긴 갯 모양의 갯바위에는 해상보행교가 있어 바다 쪽에서 정면으로 갯바위를 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이 길 위에서 예술의 향기에 취해보자.

3.5km, 소요시간 약 2시간



치유의 숲(癒), 지혜의 숲(智), 생각의 숲(想)... 양을산 둘레길



편백나무의 피톤치드로 가득한 양을산 둘레길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볍게 해주고 치유와 지혜, 명상을 안겨주는 곳이다. 양을산은 상동저수지를 중심으로 산림욕장이 조성되어 친수공간, 유아숲 체험장까지 마련되어 있다.



세 가지 테마(치유의 숲, 지혜의 숲, 생각의 숲)로 이루어진 둘레길은 총 4km로 '맨발로 청춘길'도 있어 여름에도 걷기 좋다.

또한, 주거지역과 접근성도 용이하면서 완만한 경사와 잘 관리된 숲길, 다양한 체육시설과 쉼터로 산책이든 운동이든,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맞춤형 여유를 선물한다.

4km, 소요시간 약 2시간



김 수출 1위 도시, 목포의 저력 또 한번 빛나다

목포시가 2025년 상반기 김 수출액 8,126만 달러를 기록하며 지난해 보다 6% 증가, 역대 최고 실적을 또다시 경신했다. 전체 수출액(9,216만 달러) 중 김 수출 비중은 약 88%로, 수출을 견인하며 전국 지자체 1위 위상을 굳건히 했다.

시는 김 산업을 중심으로 수산식품을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해 지역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내고 있으며, 2026년 까지 총 1,136억 원을 투입해 수산식품 수출단지를 조성 중이다.

또한 국제 마른김거래소 설립을 추진 중이며,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는 해수부 김 산업 전문기관 지정 및 AI 기반 품질등급 판별 솔루션 개발에도 참여하고 있다.

올해는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인정도 획득해 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도 마련했다.



목포시, '2025 대한민국 도시대상' 6년 연속 수상 쾌거



목포시가 지난 7월 15일 '2025 대한민국 도시대상'에서 우수정책 분야 국토교통부장관상을 받으며 도시정책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도시대상은 국토교통부가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도시의 지속가능성, 생활 인프라, 정책성과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는 최고 권위의 상으로,

목포시는 6년 연속 수상이라는 값진 기록을 이어갔다.

시는 2020년부터 매년 도시대상 수상 성과를 이어오며 문화·경제·사회·환경 전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도시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

목포시, '2025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미식관광도시 부문 수상

목포시가 '2025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에서 미식관광도시 부문 대상을 받으며, 미식 도시로서의 브랜드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이번 수상은 전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평가에서 부문 최우수 점수를 획득한 결과로, 올해 신설된 부문에서 최초의 대상 수상이라는 의미를 더했다.

목포시는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한국관광 100선', 'K-로컬 미식여행 33선' 등에 잇따라 선정되며 미식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관광 도시로서의 위상을 꾸준히 높이고 있다.

시는 오는 10월 열리는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를 통해 음식에 문화를 더한 '스토리 있는 미식도시'로서의 브랜드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목포 청년쉼터 다락(多樂)」 운영 개시

「목포 청년쉼터 다락(多樂)」이 지난 8월 11일에 운영을 개시했다. '다락'은 관내 청년들에게 창업 공간과 휴식을 제공하는 쉼터로써 잠재력과 가능성을 펼칠 수 있고 자기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에 따라 조성되었다.

1층은 카페, 야외마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2층은 소통공간으로 북카페, 회의실을 이용할 수 있다. 운영 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당분간 휴무일 없이 운영된다. 소통공간은 10월부터 대관 신청이 가능하며 목포시 홈페이지 내 QR코드 또는 인스타그램(cafe_darak_)을 통해 대관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락은 그동안 청년을 위한 공간이 부족했던 지역 내에서 청년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활동하며 잠재력과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통공간 대관신청 QR코드

목포시의회,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 열어

-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분 예산 및 성립전예산 심의·의결
- 조성오 의장,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역경제 회복과 시민생활 안정에 보탬이 되길 기대”

목포시의회(의장 조성오)는 7월 30일, 제39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여 하루 동안 원포인트 회기를 운영했다.

이번 임시회는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예산이 신속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개최되었다. 아울러 2차 추가경정예산안 이후 집행된 성립전예산에 대해서도 함께 심사했다.

이날 각 위원회에서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시비 매칭액 22억을 포함해, 성립전예산으로 ▲무더위 쉼터 냉방비 지원 ▲폭염대비 취약계층 물품지원 ▲스마트 그늘막 설치 ▲구 호남은행 목포지점 흰개미 긴급 방충사업 ▲산정근린공원 주변 우수관로 준설 ▲양을산 레포츠공원 외 도시공원 우수받이 정비 ▲목포시체육회 운영비 지원 ▲탄소중립 생활실천 우수아파트 경진대회 시상금 등 8개 사업 예산을 심의·의결했다.

조성오 의장은 “이번에 의결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역경제 회복과 시민생활 안정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시의회 역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언제나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 중심의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우리동네 소식



용당1동, 「폭염극복! 용당1동 웰빙냉장고」로 시원한 이웃사랑 실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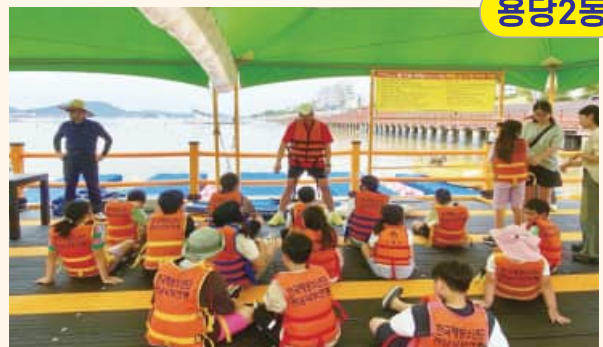
지난 8월, 용당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행호)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한 1인 1생수 무료 나눔 ‘폭염 극복! 용당1동 웰빙 냉장고’를 운영했다. 2022년부터 진행 되고 있는 웰빙냉장고는 관내 웰빙공원 내 정자에 설치되어, 공원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자유롭게 폭염에 시원한 생수를 드실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협의체 위원들이 하루 약 500병의 생수를 직접 채우고 냉장고 정리와 청결 관리까지 도맡아 하여 진행되었다. 특히 관내 자생조직과 주민들의 자발적인 생수 후원이 이어져 그 의미가 더욱 깊었다.



용당1동

용당2동, 청소년 해양 레저스포츠 체험 교실 운영

여름방학을 맞아 평소 해양 레저 체험을 접하기 어려웠던 아이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주고 건강한 성장을 응원하기 위해 용당2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명철)에서는 차량을 지원하였고, 용당2동 바르게살기위원회(위원장 전종태)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아동 30여 명에게 점심을 제공하였다. 이번 체험교실을 통해 아동들에게 잊지 못할 즐거운 시간을 선사하였다.



용당2동

연동주민자치위원회 등 자생조직 일동 연동 삼동이 100일 축하금 전달

연동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귀철)는 지난 7. 9.(수) 목포시 연동에 거주하는 김재승 씨 가정의 삼둥이들이 100일을 맞이하자, 축하금 50만원과 함께 정성 어린 축하 메시지를 전달하며 가족과 기쁨을 함께 나눴다. 이번 축하금 전달은 다자녀 가정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통한 지역 공동체의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추진되었다.



연동

산정동, 초복맞이 경로당 건강기원 위문행사

산정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은성호)에서 7월 15일 초복을 맞아 관내 경로당 10개소를 방문하여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고 선물을 전달했다. 본 행사는 다가오는 초복을 맞이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을 살피고 마음을 나누기 위하여 마련됐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과 위원들의 후원으로 수박 10개, 매실음료 10박스, 커피믹스 10상자, 화장지 10팩, 단팥빵 200개를 준비해 경로당을 방문하여 선물을 전달했다. 또한 무더위에 지친 어르신들을 살피며 안부를 묻고 마음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산정동



연산동, 취약계층에 건강한 여름나기 삼계탕 밀키트 전달

연산동 통장협의회(회장 윤경아)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이성주)는 무더위와 폭우로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건강한 여름나기 삼계탕 나눔행사를 마련했다. 통장들이 한방 삼계탕 밀키트 100개를 직접 방문하여 전달하며 대상자의 건강을 기원하고 안부를 확인했다. 영양 듬뿍 한방 삼계탕 밀키트를 받아 드신 어르신들은 환하게 웃으시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다.

연산동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따뜻한 나눔을」 다자녀 가정의 특별한 이웃사랑 실천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역사회에 따뜻한 감동을 전해주고 있다. 4명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에서 소비쿠폰 108만 원 전액을 사용하여 라면 32박스를 원산동 행정복지센터에 기부한 것이다. 해당 가정은 온누리교회 이준석 담임목사 가정으로 2023년에 부임하여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섬김과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다. “소비쿠폰은 우리 가정을 위한 지원이지만,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를 했다”고 밝혔다.

원산동



대성동, 「정성 가득, 영양 가득」 밀반찬 나눔행사 개최

지난 7월 10일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잘 보낼 수 있도록 대성동 새마을부녀회(회장 오수진)가 정성을 듬뿍 담은 영양 가득한 밀반찬(양파김치, 장조림 등) 6종 세트를 마련하였다. 이 반찬들은 관내 홀로 생활하시는 중장년 1인 가구 및 다문화가정 등 도움이 필요한 20세대에 전달됐으며, 이는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이웃 간 따뜻한 정을 나누고 공동체적 유대감을 더욱 돈독히 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대성동



목원동 자생조직연합, 「사랑의 삼계탕 나눔 행사」 진행

목원동 자생조직연합(주민자치위원장 신홍수)은 지난 7월 8일부터 11일까지 삼계탕 나눔 행사를 열어, 관내 경로당과 저소득층에게 삼계탕 300인분을 전달했다. 8일에는 경로당 8곳에 125인분의 삼계탕을 전달하고, 11일에는 나무포(대표 김맹곤)에서 만든 삼계탕을 통장 35명이 저소득층 175 가구에 전달하며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살폈다. 해마다 어르신과 취약계층을 위해 나눔 행사를 진행한 목원동 자생조직연합에서는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도움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목원동



해오름봉사단, 따뜻한 반찬 나눔으로 이웃사랑 실천

해오름봉사단은 매달 독거 어르신과 거동이 불편한 가구 등 취약계층 23세대를 직접 방문해 정성껏 준비한 반찬을 전달하여 이웃들의 안부를 살폈다. 봉사단은 매월 셋째 주 수요일마다 꾸준히 나눔을 이어오고 있으며, 2020년부터 5년째 지역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지역 독지가들의 따뜻한 후원으로 이루어지는 나눔 활동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전해주고 있다.

동명동



삼학동 어르신 대상 「나만의 퍼스널 컬러 찾기」 행사 추진

삼학동행정복지센터는 관내 경로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자신에게 어울리는 컬러, 헤어스타일, 메이크업 등을 찾아보는 「나만의 퍼스널 컬러 찾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나만의 퍼스널 컬러' 박수향 강사와 수강생들의 재능기부로 진행되었으며, 행사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퍼스널 컬러 진단을 통해 자신의 개성과 이미지에 어울리는 색상과 스타일을 찾아보며 큰 호응과 만족을 보였다. 특히 직접 다양한 컬러 천을 대보며 변화된 모습을 확인하는 체험활동은 어르신들에게 즐거움과 자신감을 선사했다.

삼학동



만호동 삼계탕 밀키트 전달로 이웃사랑 나눔 실천

만호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나눔의 집 23개소, 하당라이온스 클럽 박정수 회원의 후원으로 홀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하는 초복 나눔 행사를 마련했다. 폭염과 무더위에 지치기 쉬운 취약계층 어르신 60세대를 위해 삼계탕과 약재, 물김치로 구성된 삼계탕 밀키트를 준비해 가정 방문하여 안부를 살피며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사랑과 정이 넘치는 동네 만들기에 앞장섰다.

만호동



유달동행정복지센터, 「도서지역 어르신 복지 혜택 지원」

지난 7월 30일, 유달동행정복지센터는 교통여건이 열악하여 복지혜택을 제때 누리지 못하는 도서지역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발급하고, 8월 3일에 섬 지역 경로당 (달리1구 · 2구 경로당, 울도 1 · 2 경로당)에서 새마을부녀회 주관 복날 행사를 하여 어르신들이 건강한 여름을 지낼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도 유달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여러 방면으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에게 찾아가는 행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유달동



죽교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랑의 전자모기향 전달 행사

죽교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윤연심)는 지난 7월 18일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자모기향 80세트를 전달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계절별, 대상별 특성에 맞춘 지원으로 취약계층의 쾌적한 여름나기에 도움이 되고자 준비한 것이다. 협의체 회원들은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주민 중심의 복지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죽교동



북향동 새마을부녀회, 중복맞이 어르신 건강기원 복달임 행사 추진

북향동 새마을부녀회는 중복을 맞아 7월 29~30일 양일간 관내 경로당 8개소를 방문해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하는 복달임 행사를 열었다. 회원들은 닭죽 재료, 열무김치, 수박을 담은 건강꾸러미를 전달하고 일부 경로당에서는 직접 닭죽을 끓여 대접했다. 이번 행사는 무더위를 이겨낼 수 있도록 보양식을 나누며 안부도 살피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며, 북향동 자생조직연합회의 후원으로 주민 화합과 건강한 마을 만들기에 기여했다.

북향동



용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행복 드림「Dream」 나눔 사업 추진

용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주환)가 지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한부모가정 59가구 아동을 대상으로 과자 꾸러미 (100만 원 상당)를 전달하여 기쁨과 응원의 마음을 선물했다. 또한 용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매월 취약계층 대상 반찬나눔 사업인 「찬·찬·찬 건강더하기+」와 아동들에게 간식을 선물하는 「함께하는 햄버거 데이」 등 나눔 사업을 추진하여 행복메아리가 들리는 용해동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용해동



「이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과 상생」 문화체험 특화사업 진행

목포시 이로동행정복지센터(동장 차태명)는 11일 이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태운) 주관으로 문화체험 기회가 적은 아동을 위해 여름방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아동들은 문화활동, 야외체험, 외식을 즐기며 또래 관계를 형성했고, 즐거운 방학 추억을 만들었다. 김태운 위원장은 지속 가능한 민관 협력 모델로 발전시키겠다고 했으며, 차태명 이로동장은 독서·체육·진로 연계로 프로그램을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평소에도 나눔 행사와 봉사로 지역 복지를 실천하고 있다.

이로동



상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랑의 양파김치 나눔

상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애영)는 지난 7월 양파 소비 촉진과 이웃 사랑 실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사랑의 양파김치 나눔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동 직원, 주민자치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 20여 명이 참여했으며, 정성껏 담근 양파김치는 저소득 취약계층 30세대와 경로당 19개소에 전달되었다. 특히 홀로 사는 어르신 댁에는 위원들이 직접 방문해 김치를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하는 등 따뜻한 정을 나눴다.

상동



하당동 자생단체, 초복 맞이 어르신 삼계탕 나눔

지난 7월 18일, 하당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문준포)와 새마을협의회(회장 강원), 새마을부녀회(회장 김수정)는 초복을 맞아 관내 경로당 8개소를 직접 방문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기원하는 삼계탕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무더운 날씨에 지치기 쉬운 어르신들을 위해 하당동 자생단체가 함께 삼계탕, 수박, 김치 등 음식을 전달하며 안부를 살피고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하당동



이웃 사랑이 넘쳐나는 「we love 신흥동」

지난 7월 21일, 신흥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임정환)는 하당라이온스클럽(회장 양상무)의 후원으로 삼계탕 밀키트 80개를 준비하여 관내 어르신 40가구에 전달하는 삼계탕 나눔 행사를 열었다. 또한, 신흥동 소재 야드레보쌈(대표 최선우), 그린하우스베이커리(대표 강인주), 명가한식뷔페(대표 김정희)는 매주 외식 쿠폰과 빵을 탕화쿵푸마라탕(대표 조민정)과 예향정하당점(대표 김대한)에서는 매월 백미를 후원하여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we love 신흥동」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



신흥동

삼향동 주민자치위원회, 건강한 여름나기 나눔 행사 실시

삼향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내 경로당 12개소, 지역아동센터 1개소 대상으로 여름나기 나눔 행사를 시행하였다. 이날 삼계탕 40마리와 수박 15통을 준비하여 주민자치위원 및 동 직원들이 직접 이웃들에게 전달하였다. 이 행사를 통해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고 성장기 아이들의 건강을 챙기며 소통과 나눔 통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삼향동

옥암동 주민자치위원회, 초복 맞이 어르신 건강꾸러미 나눔

지난 7월 17일, 옥암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신석호)는 초복을 맞아 관내 경로당 14개소에 토종닭 백숙 62세트와 수박, 쌀(10kg)로 구성된 건강꾸러미를 직접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주민자치위원, 도·시의원, 동 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해 정성껏 준비한 200만 원 상당의 건강꾸러미와 식료품을 전달하며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는 등 이웃 간 온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옥암동 주민자치위원회는 2022년부터 매년 건강꾸러미 나눔 행사를 이어오며,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옥암동

부흥동 바르게살기위원회, 우리동네 어르신 건강한 여름나기 복달임 행사

지난 8월 2일, 부흥동 바르게살기위원회(위원장 김용현)에서는 동네 어르신 120여 명을 모시고 '우리동네 어르신 건강한 여름나기 복달임 행사'를 개최하여 삼계탕을 정성껏 대접했다. 이번 행사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후원으로 마련되어 어르신들께 건강식을 제공하고, 수건(동일광고)과 치약칫솔세트(유디치과)를 준비해드리며 이웃 간 정을 나누는 귀한 자리였다. 이날 부흥동 자생조직은 단합하고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한마음으로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지원하였다.



부흥동

부주동 샘터교회, 청소년들의 꿈을 위한 따뜻한 나눔 실천

부주동 소재의 샘터교회(담임목사 최일홍)에서 지난 5월 교인들이 모은 현금 1,100만 원을 부주동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이 장학금은 관내 저소득층 및 한부모가정 청소년 22명에게 각 50만 원씩 전달됐다. 샘터교회는 2016년부터 매년 청소년 장학금을 후원하며 지속적인 선행으로 지역사회의 교육복지에 힘쓰고 있다. 이번 장학금은 학생들이 꿈을 키우고 미래 지역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주동

호우·태풍 시 안전관리 이행수칙 가이드

- ✦ (호우(豪雨)) 단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현상으로, 12시간 당 예상 강우량에 따라 호우주의보 및 호우경보로 구분
- ✦ (태풍(颱風)) 북태평양 남서해상에서 발생하는 열대성 저기압 중에서 중심 최대풍속이 17m/s 이상으로 폭풍우를 동반하는 기상현상

호우·태풍에 의한 재해유형

홍수·침수

유해·위험요인

- 배수로 정비 미비로 인한 건물 및 지하구조물 침수
- 하천 인근에서 작업 중 집중호우로 빠르게 불어난 급류에 휩쓸림

예방대책

- 태풍·호우 등 악천후 예상 시 사전 근로자 대피기준 마련 및 교육 실시, 위험작업 중지조치



붕괴·매몰

유해·위험요인

- 토사유실 또는 지반약화로 인한 굴착사면 무너짐
- 배수불량으로 인한 옹벽 및 석축 붕괴

예방대책

- 사면 덮개설치 등 사전 우수 침투방지조치 실시
- 지반 굴착면 기울기 준수 및 주기적 계측 실시



감전

유해·위험요인

- 태풍으로 무너진 전주, 전선 등에 의한 감전
- 젖은 손으로 전기기계·기구 취급으로 인한 감전

예방대책

- 전기기계·기구의 절연 및 충전부 방호조치 실시
- 누전차단기 설치 및 접지 실시



비바람 올 때 이렇게 행동하세요!

주변 어르신께 알려주세요



날씨 소식을 자주 듣고, 가족과 연락해요
가족, 이웃, 이·통장 전화번호 집에 붙이기



먹는 약, 보청기, 지팡이 미리 챙겨요
안경, 전동휠체어 배터리 등 미리 확인



대피소와 대피소 가는 길 미리 알아봐요
가까운 대피소 읍·면·동사무소에 물어보기



비가 많이 온다고 하면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요
이웃과 함께 마을회관 등으로 미리 이동하기



대피 요청이 있으면 신속히 이동해요
공무원, 이·통장이 위험하다고 하면
마을회관 등 대피소로 이동하기



하천 주변, 산길, 논, 배수로 위험해요
배수로/논둑, 하천/해안가, 산 주변 등
위험한 장소에 접근금지

사업장에게 알려주세요



호우·태풍 발생 전



공동

- ☑ 사업장 소재 지역의 태풍 북상시기 및 호우특보 발효여부 수시 확인
- ☑ 비상사태에 대비한 대책수립 및 유관기관 (병원, 소방서, 경찰 등) 연락망 구축
- ☑ 유사 시 근로자 대피로 확보 및 교육 실시

호우·태풍 발생



공동

- ☑ 저지대·상습침수지역 내 사업장은 근로자 임시대피 실시
- ☑ 지붕 위 떨어짐 위험이 있는 외부작업 중지
- ☑ 유리창, 가설구조물 인근 등 위험장소 접근통제

호우·태풍 발생 이후



공동

- ☑ 사업장 주변 파손된 상·하수도, 도로 등 발견 시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
- ☑ 침수된 건물, 공장 내부는 사전 환기조치 및 설비 재가동 전 안전점검 실시

2025 남도국제 미식산업박람회

2025. 10. 1. - 10. 26.

목포문화예술회관 / 평화광장 / 원도심 일원

